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

류 정 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5~46페이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은 경제강국건설이며 그것은 바로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의 본질적내용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이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무엇보다먼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기본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는데 있다.

우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게 하는 혁명적인 로선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해나가게 한다.

이 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한다.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힘차게 투쟁해나갈 때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백방으로 강화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가 철저히 실현되게 된다. 그것은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무

장한 인민대중만이 오직 자기 힘을 굳게 믿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외세의존을 버리고 자력자강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현정세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은 《공동의 번영》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저들이 정치군사적으로 예측시키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원조》나 《인도주의적지원》의 공간을 리용하여 지배와 간섭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사실상 제국주의적《원조》라는것은 어느것이나 다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략탈과 예측의 울가미이며 그 나라 인민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을 마비시키게 하는 마약이다.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떨쳐나서면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백방으로 강화된다. 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시기에 협력과 교류가 해당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 협력과 교류도 전체 인민이 자기의 힘을 확고히 믿고 일떠설 때에만 은을 내게 되며 그래야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또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게 하는 과학적인 로선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는 현시기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켜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떠나서는 주체화도 원만히 실현될수 없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는 그 내용상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보화, 과학화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민경제의 모든 기술장비들을 첨단설비들로 현대화하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들과 최신정보기술수법들을 받아들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전과정을 정보화, 과학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그것을 기관차로 하여 경제를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한다.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갈 때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세계를 압도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을 하루 빨리 일떠세울수 있기때문이다.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할 때 발휘되는 힘은 그 어떤 계기로도 꺾수 없는 무한한것이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다음으로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이 마련된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해 나가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기본목적은 어디까지나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자는데 있으며 그것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된다.

우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자주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자체로 건설해나가게 하는 혁명적인 로선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은 그들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사는 생활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은 그 누가 가져다주는 선사품도,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일떠세우게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은 오직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요구대로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투쟁해나갈 때에만 보장된다. 그것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일떠서려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무장한 인민대중만이 자기 나라의 실정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자체의 역량에 의거하여 경제를 마음먹은대로 발전시켜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할수 있기때문이다.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도 평등의 원칙에서 잘해나갈수 있다. 자기의것은 없고 남의것에 의존되어있는 생활은 경제적으로뿐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예속된 생활을 피할수 없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투쟁하는 길만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인민의 자주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길이라는것은 자주기치밑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력사적총화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전환적시기마다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로선은 빼외없이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한 자주적인 로선이였다. 연길폭탄으로부터 시작된 장엄한 자력갱생의 행군길에서 우리 인민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웠다. 우리는 제힘으로 살아가고있기때문에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 누구한테 굽신거리지도 않으며 모든 일을 우리의 의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리익에 맞게 해나가고있다.

또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신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게 하는 과학적인 로선이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최종목적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종당에는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조건을 보장해주자는데 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마련해나가도록 한다.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은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요구대로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고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될 때 하루빨리 보장될수 있다. 그것은 물질적부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인 인민대중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된 과학기술을 더 잘 알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

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야 자신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자기 힘으로 마련할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가 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상품경쟁력을 높이자고 해도 그렇고 좋은 투자조건과 경제협력공간을 마련하자고 해도 과학기술수준이 높아야 해당 나라와의 관계에서 주동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안받침이 없이는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반드시 과학기술의 힘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현실로 꽃피우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이다.

실마리어 경제강국건설, 전략적로선